

“장병들의 어머니 되겠습니다”

심우회 군법당 불사에 불상·탱화등 보시

항지모임 근로봉사 장병·김장·간식제공

보문회 육사·공사·해사 등 장교포교 주력

장병들을 포교하는 불교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심우회, 항지모임, 보문회가 대표적이며 논산훈련소 불교어머니회와 군불교진흥회 후원회등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15일 경기도 75사단 법당 입주법회에 참석하여 대형 보은물품 2개 등 필요물품을 보시하고 대중공양을 펼쳤다. 법당이 없던 마지막 사단인 75사단은 심우회 회원들의 원력으로 부처님을 모시게 됐다. 군장병 3백명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밀운스님(봉선사주지)은 “군법당이 생긴 것을 계기로 더욱 군생활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물심양면으로 군복사 포교에 앞장서준 심우회의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심우회는 올해만해도 12사단 낙산식, 3사관학교 법당건립, 육군특수전학교 법당건립, 75사단 법당건립불사에 불상과 탱화를

모시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1사단등 군부대를 방문하여 이번 여름 한달간 수해지역에서 근로봉사하는 군장병들의 위문등을 통해 군부대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심우회는 앞으로 28일 이번 여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의정부 기무부대 법당에 보일러를 보시하고 12월에는 21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에게 대중공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연천지역에 소재한 항지모임(회장 양춘연)은 경기도 북부지역 군부대를 찾아 군법당을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매주 일요일 군장병위문등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군법당 건립불사에 앞장서온 항지모임 회원들은 가을마련을 위해 김, 미역등 수산물들을 광안군복사병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3사관학교 법당건립불사에 시주한 심우회 이지성심보살이 3시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고양 의정부 백제지역에 복구봉사나온 군장병들에게 김장김치 50양동이와 빵 우유등을 20여일간 보시했다.

항지모임은 5사단 14개 법당에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비회가 모체이며 지난 9월 1일 사할신도회 등 군부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작은 단체들이 모여 새롭게 창립했다.

양춘연회장은 “불심으로 군생활에 활력이 됐으면 한다”며 “군복사 장병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문회(회장 박병희)는 육사,

공사, 해사, 3사관학교등 장교후보생 포교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보문회는 군장교를 육성하는 4개학교 법당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도들에게도 다양한 위문활동을 펼쳐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지성심보살(심우회 회원)은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부대에 불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군복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환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분당 새 법당불사 도와주세요”

한통불자회 시주자 찾아

한국통신불자회(회장 이문옥)는 분당 신사옥 이전과 함께 지하 5층에 45평 규모의 법당공간을 확보하고 법당장엄불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장불교단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는 (0342)727-2201 김

법과장.

한국통신불자회는 전국연합회를 결성한다는 목표 아래 10개 지역본부에 지부를 개설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백여 전회국에 불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초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통신불자회는 10월 18일 대전 신원사에서 6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모임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주)태고 업무 시작

차량·연금등 보험취급

김철회 태고종 신도회장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하고 총괄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태고'를 10월 24일 창립했다. 주식회사 '태고'는 자동차, 화재, 상해, 운전자보험과 연금보험 담보보험등의 보험업을 취급한다.

김철회회장은 “보험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불교문화 발전과 증진을 위해 (가칭)한 불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며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사할화재보험 상품등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2)392-6233 김원우 기자

우리의 믿음에선

직장단체 연수 연기

조계종 포교원이 28일부터 29일까지 마곡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직장·직능단체연수회가 종단사정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가 됐다.

금강메아리 창립5돌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최혜명)는 12월 6일 포천 죽포가든에서 창립5주년 기념법회및 송년모임을 갖는다. 기념법회 참가는 6일 오전 8시30분 동대문 이스타호텔에서 출발한다.

한편 금강메아리산악회는 12월 20일 한해를 마무리하며 남해 보리암으로 사할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017-277-6758

하늘동 첫 정기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상일)는 29일 오전 10시30분 영주부석사에서 제1회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앞서 하이텔불교동호회는 28일 도착하는 회원들을 위해 합선정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아침공양후에는 박상표씨(바르보는 우리문화대사 기획담당)가 부석사를 안내하며 설명할 예정이다.

‘국난극복’ 선암사 참회법회 이모저모

대각국사 가사 첫 공개

○...태고종은 이날 대각국사 탄신 943주년 대례제에서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친히 수했던 가사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나무상자에 보관된 대각국사 가사는 대체로 흠집이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상태라 친견하는 불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각국사는 고려 선종9년(1092년)부터 선암사에 주석하면서 천태선종을 창종했고, 선암사를 현재의 대가람으로 중흥불사를 일으킨 주역이다.

3박4일간 인산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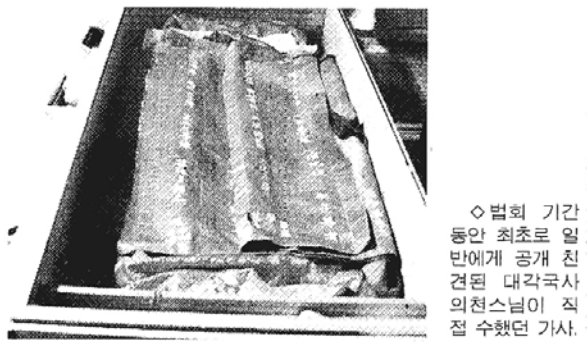
○...국내에서 가장 원형 그대로 보존된 전통사찰 선암사는 고색창연한 52동 당우들과, 울긋불긋한 단풍등을 입고 조계산을 뒤덮은 나무를 그리고 태고종스님들의 홍가사가 삼위일체로 어울어져 그 빛을 더했다.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만들이 장엄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태고종이 주관한 첫 종단 연합법회의 자리였다. 또한 이 법회 이외에도 합동독서·승정추대법회·대각국사 탄신대례·사리전견법회도 함께 열려 태고종 단일불사로서는 가장 큰 법회로 치러졌다. 3박4일 동안 선암사에는 연 1만여 신도가 모여 일주문쪽 주차장부터 대형버스들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 식단인 대웅전을 향해 앞마당을 중심으로 병들러한 삼경당 민세루 관음전 설선당에는 발디발름도 없이 신도들로 가득 찼다



대웅전앞 단상에 자리한 종단 지도자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리원장.



사진 왼쪽부터 전두환 전대통령, 박성규 국민의회의 연동회장, 허경만 도지사, 함중환 한리당 불자회장.



법회 기간 동안 최초로 일반에게 공개된 대각국사의 천스님이 직접 수했던 가사.

겨울폭우 법회직전 그쳐

○...겨울을 재촉하는 폭우가 오전까지 계속해서 내리다가 법회 1시간 전부터 완전히 멈추자 행사 진행 관계자들과 불자들은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 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법회는 민방위훈련 관계로 2시30분 시작됐다.

전 전대통령에 ‘달갈시위’

○...전두환전대통령의 참석과 관련 전남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백여명의 경찰병력을 행사장에 투입했다. 경찰들은 행사전날부터 경호에 행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당일 전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 내빈 접견실인 복건을 막 나서는 순간 5·18추진위원회 2명이 ‘진상규명’ 요구를 하며 단진 계란시위는 막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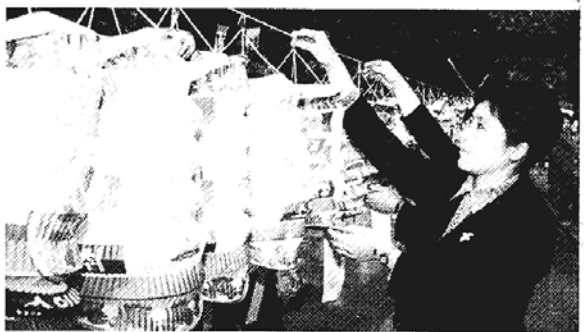
수계법회 이타행 다짐

○...보살계수계법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그동안 열렸던 6차례 국난극복 법회와는 달리 ‘우리의 다짐’에서 지계실현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주목을 끌었다. “어떤 경우에도 계를 지켜지니겠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와 사회를 정화하고 대중제도에 모든 노력을 다해 이타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수계와 지계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아 냈다.

위영란·김원우 기자 (yryu@buddhopia.com)



보살계 수계로 다시 국운을 열어보려고 기원했다.



선암사 진입로부터 경내 곳곳을 장식한 국난극복 기원 만등.

3,000 옥불 조성 봉안

동원정사 대웅보전 삼존불 점안 대법회 초대말씀 - 자비행 정우장학금 수여식 -



결실의 계절 불보살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방에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당사 대웅보전(목조 60평 내 11포, 외 7포)을 3년 동안 건립불사를 마무리하고 삼존불을봉안하는 대법회를 월운, 월탄 대중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봉행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회 근본도량 조계종 동원정사 승묵 합장

- 일시 : 1998년 11월 29일(일요일) 오전 11시
- 법어 : 월운 대중사 (동국대 역경원장, 봉선사 회주)

제 1 부 ○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점안 법회
○ 자비행 정우장학금 수여식 (생활근란 학업성적 우수자 20명 1,200만원 지급)

제 2 부 ○ 축하공연(국악공연 및 수화발표)

◆ 교통편 : 좌석버스 765-1, 330-1를 정릉리역에서 마석 차산리행 타고 광안역서터 앞 하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05번지 동원정사
문의전화 : 0346) 593-6829, 7584

금강불교 교양대학 강좌 개설안내

금강사에서는 금강불교 교양대학 강의실인 제불보전 헌경/천불상(古佛像 高1尺)을 개금불사 하여 새롭게 봉안하고 그 무량공덕을 기리고저 금반 불교경전 독송·강설과 교리·신행 교양대학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수강불자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 개강 : 불기 2542년 11월 25일 10시 30분
- 기간 : 11월 19일부터 불기 2543년 5월 9일
- 장소 : 1) 교리강좌 : 매월 음력 1일·24일 제불보전
2) 신행강좌 : 매월 음력 7일 (특강) 큰 법당
- 강좌 : 매월 음력 1일·7일·24일 10시 30분~12시

강좌 내용

- ◇ 불자예절 ◇ 불교의 기본교리 ◇ 불교예식
- ◇ 6법공양실습 ◇ 불교의 신앙생활 ◇ 생활불교실천
- ◇ 성지순례 ◇ 삼귀의·5계수계 ◇ 금강경 강설

▶ 접수·안내 : 금강사 중무소 ☎ 02)993-3744

132-031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531-8(우이동 8번버스중점뒤 300m)
금강불교 교양대학 학장 강자우